

낚시는 취미 그 이상의 문화행위

작성자 김 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 체육학 박사)

1. 세계적 문화유산 견지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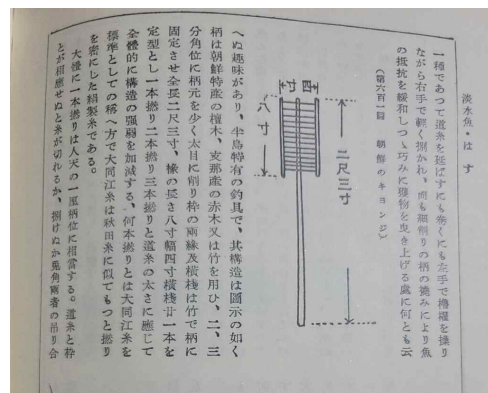
조선시대 : 견지낚시 기원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지만 김규진의 평안감사 부임도 같은 조선시대 미술작품에 작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겸재 정선의 '소요정'(작품명)에는 꽤 세밀하게 견지낚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미술작품에서 등장할 정도라면 당시 견지낚시는 생활 안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을까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겸재 정선의 소요정 : 두 낚시인이 배에서 견지낚시를 즐기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마쓰자끼 메이지가 저술한 조기백과(1942년)에 우리의 견지낚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2백년의 역사를 말했으니 견지낚시는 최소 3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셈입니다.



물락의 시작

평양의 대동강과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성행하던 견지낙시는 70~80년대에 큰 붐을 이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경우 용산에서 팔당 구간사이에만 전용 낙시배 (낙거루)가 1천여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견지낙시는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쫓겨나게 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견지낙시인들은 이제 소수의 고령자들 위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견지채를 생산하던 장인들도 타산이 안 맞는 견지제작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 하나가 우리사회의 무관심속에 곧 소멸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견지낙시의 문화적 의의

견지낙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낙시 기법입니다. 이런 형태는 전세계 어디를 봐도 비슷한 게 없는 독창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견지낙시는 아저씨나 할아버지들만 즐기는 아재들의 낙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대의 관심을 못 받고 인구유입도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과거의 것들을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레트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견지낙시는 매우 ‘클래식’합니다. 한마디로 오래된 문화유산이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감히 말하지만 이 정도의 독창성이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낙시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대한민국 낙시계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지령 50년 이상의 전문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전문지가 반백년의 역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양한 신매체의 등장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그 명맥을 곳곳이 유지해온 낙시春秋는 1963년 창간한 ‘월간山’과 나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레저 전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지로서 기능을 하던 낙시春秋는 더 이상 잡지로서의 기능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고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책이 50년을 넘어가면 문화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척박했던 낙시계에 다양한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했던 낙시春秋의 존재의의는 이제 대한민국 문화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자리 잡아 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1971년 3월 창간한 낙시春秋 창간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두 번째는 낚시박물관입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관광의 명소 단양군에 가보면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누리 아쿠아리움이 있고 맨 위층에는 ‘다누리 낚시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관한 다누리 박물관은 한 낚시인(한국전통견지낚시 협회 회장 조성욱)의 헌신적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단양군(당시 김동성 군수 재직)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더해지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국내 최초의 낚시박물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현재 다누리 낚시박물관은 단양군의 관광객 유치에 당당히 한 몫을 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 낚시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 지령 50년 이상의 살아있는 전문지가 있고 그 분야의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뿌리가 깊고 넓음을 가늠하는 상징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낚시는 단순히 취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낚시에 심취해 평생을 몰입한 낚시쟁이들이 수도룩한 우리 낚시계는 질긴 생명력만큼이나 그 문화적 저력을 앞서 언급한 두 문화유산을 통해 증명한 셈입니다. 거기다 전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없을 독창적인 낚시기법 견지낚시까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들고 전세계에 자랑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늘 그랬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체육 분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강인함을 입증해 보여 왔습니다. 세계적인 골퍼 박세리 선수가 그랬고 지금은 BTS가 한국인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요소를 고루 갖춘 낚시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낚시계가 이제 도약할 때가 되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정관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낚시는 단순히 취미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도전하고픈 스포츠종목의 하나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중 앞에 표현하고 싶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밀려 소외되었던 낚시가 이제는 1등 국민레저로 등극했습니다. 수변 쓰레기 문제로 연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떤 낚시인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낚시와 낚시인들을 더 이상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지마시고 사회와 공동체를 가꾸는 주역으로 보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